

신앙인 예배
친구인 만남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홍

자원봉사를 통해 깨달은 십자가의 은총!

“섬기려 하고...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충현 동산에 이어서 충현 기도원까지 자원봉사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도,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날아하거나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충현 기도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소화하기 힘든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는 한결같은 기쁨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땅을 일구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벧전 5:2). 비록 땀으로 재수를 하고 옷은 흠뻑 젖어버렸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살아 계셨습니다(마 20:28). 또한 이들의 자원봉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참신자로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로 8:12).

날로 생동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는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가 잡힌 “기화봉사”에 기초하여 이제 ‘달달한 봉사’(행정, 전기, 기계, 음향, 영상, 조정, 조리)로 그 지경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대상 4:10). 그리고 주님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골 2:5)을 가지고 지금 나오십시오. “제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고후 8:17).

이번 주 수요일(13일), 교회주변 총력전도

믿음으로 전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믿음이 없기네. 믿음이 없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없기네”(창 39:7).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참지 못할 뜨거운 무더위라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미려한 전도의 방법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의 마음(고전 1:21)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진심어린 전도의 심장을 가진 십자가 증인들은 이번 주(13일)에도 어김없이 믿음으로 “교회주변 총력전도”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증인들의 힘찬 발걸음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한 은혜, 전도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전도 ② 수요일 예배 ③ 교구별영성훈련 ④ 여전도회월례회 ⑤ 교회주변 총력전도



오늘(10일) 제8차 CMTC 훈련 안내 (둘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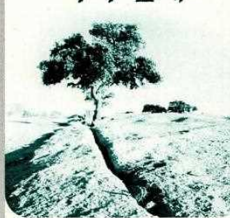
제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 권력별 사례발표(선배강의)	(오후 7:10~8:10)	갈릴리움

정교: 카톨릭(베나리움) / 회교(나사렛움) / 힌두교(문당 112호) / 불교(갈릴리움)
계장 강는: 타종교 이해 30분, 종교 권력별 사례발표 30분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일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문제



인류사적 자체가 신적 권위와 인간의 책임의 모순으로 엮여 있다는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특유한 것이다. 신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역사는 우연하게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단 2:21, 행 1:6). 그러므로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통치하심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성경에서 보는 역사는 역사가 진 행되고 있는 목적과 인간 자유주의의 실패를 보여준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어느 역사가도 이러한 의견을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에게 순종하여 행하게 한다.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갈 2:20, 빌 2:12-13). 우리를 자기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존재(마 10:40)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요일 1:5)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만일 이 사실이 진리라면 어떻게 이 세상 곧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악이 존재할 수 있던 말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

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자연적인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진이나 홍수, 많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불행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시 73:2-3).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당한다(계 8:9). 악약강식 즉, 악한 자가 강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닐까? 이것보다 더 큰 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반역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인간이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이 지옥에 빠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아셨다면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이 돌로 갈라지자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줄 아셨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겠나? 도덕적인 악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잔인(인)전쟁, 욕심과 질투, 증오와 자존심 등에서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여러 모양의 도덕적 죄로 인한 고통과 파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악의의 여자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지혜의 분석으로는 하나님의 선함과 전지전능함을 이해하기까지 악의 실패를 부인하게 되는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말씀(성경)에서 주는 대답을 찾아보자. 오직 성경만이 악의 근원과 우주 안에 파자되는 악의 궁극적인 파멸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 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안에 놓여 있다. 전지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또한 참 자유의지를 소유한 창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창조물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배반함으로 인한 이 악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창 2:16-17). 하나님은 절대하시지만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여자가 없다. 마귀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 안에 악을 들어오게 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그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포함시킨 계획을 고안하신 분이지만 결코 죄를 범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서도 또 왜 악이 그의 완전한 창조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탁월한 계획 안에 비록 악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것이 가장 큰 선을 가져올 것을 알고 계셨다.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지 만물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자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택하신 것이다(창 3:6, 사 45:7).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죄를 범한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라는 데 쓰신 것도 볼 수 있다(창 16:21-22, 계 17:7).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셨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되 죄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의 심판주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로 3:5-6).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대당할 수가 있다(사 40:13-14, 요 4:2).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복과 같이 인간의 유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도들은 독재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에 대하여 절대적인 기준이다(마 10:18, 창 22). 따라서 하나님이 선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사회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된다.

JESUS HAS THE POWER TO HANDLE EVERYTHING

⁽³⁾*And they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men. ...*

⁽¹⁰⁾*"But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said to the paralytic ⁽¹¹⁾"I say to you, rise, take up your pallet and go home."*

⁽¹²⁾*And he rose and immediately took up the pallet and went out in the sight of all; so that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glorifying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Mark 2:3-12)*

In today's Bible verses we find Jesus, a paralytic with four friends, some scribes, and a huge crowd gathered at a home in the city of Capernaum. Jesus had recently returned from visiting some nearby towns, "When He had come back to Capernaum several days afterward, it was heard that He was at home" (Mk. 2:1). The news of His homecoming caused quite a stir because the people of Capernaum knew about Jesus' greatness. They had not only heard about His "preaching and casting out demons" in the synagogues throughout Galilee (Mk. 1:39), but witnessed firsthand His power to heal "many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during his last visit with them (Mk. 1:34). They gathered to be near this wonderful Jesus because they wanted to hear what it was He had to say. They were aware of some of His powers, but not all of them. They did not know about His power to forgive sins, and they had not figured out that He had the power to handle everything!

As Jesus spoke the word to the multitude around Him, four men on the roof above lowered a paralytic man down right in front of Him. This strange interruption in the middle of the worship service naturally caught Jesus' attention. The man lay on a pallet immobile—his whole body paralyzed. Although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the crowd who needed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Jesus took the time to concentrate on this lowly man. Normally when we see disabled people in church, they are in a wheelchair and require only one person to help them. Completely paralyzed, this man required four people to carry him. He was utterly helpless, without hope. His body was like a dead man. Could you help bring someone like this to church? The problem is not their rejection, but your reluctance. Is it really too much work for you? James 5:14-16 says, "Is anyone among you sick? Then he must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they are to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they will be forgiven him.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As the people looked at the sick man, they saw his terrible physical condition, but Jesus first saw the faith of the four men, "And Jesus seeing their faith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v. 5). Jesus did not look at the paralytic's physical sickness, but his spiritual sickness. Jesus saw the man's spirit. He saw his soul wrapped in sin. The crowd recognized the outer struggle, but not the inner problem,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Jer. 17:9) When you minister to people who are mentally or physically troubled, can you feel their sin? Jesus sees the sin. Without Jesus, the human heart decays. Jesus looked at the paralytic man and saw the deadly poison of sin. God calls sinners to Himself, "Come now, and let us reasons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Is. 1:18). The Lord God wants to discuss the problem of your sin, not your welfare. Jesus call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The four men who brought the paralytic man before Jesus had faith. They believed in Him as Savior and Master. They believed He could heal their friend. They knew no one else could fix him. They practiced their faith. They took the time to bring him to Jesus. Even though they could not get in the door to see Him, they did not stop trying. Many good

believers might have brought this paralyzed man to Jesus, but finding out that they could not get in the door, they would have thought their job done. These four men did not let obstacles get in their way. They were determined to make sure he got to Jesus. They carried him to the roof of the house, dug a rather large hole through it, and lowered the pallet with their friend attached. They put a hole in someone else's roof, and did not even ask Jesus to excuse their boldness. That is their faith. We do not know their names, and the Bible does not give us any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them. All we know is that they had strong faith, and Jesus saw it,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Mt. 9:2). Faith is important. Do you believe in the power of Jesus? Do you know how important your faith is? You can save souls, if your faith works. The paralytic man could not reject his friend's resolve to bring him to Jesus because of his condition; the hard thing was bringing him to Jesus. The gospel,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message of Jesus Christ needs your declaration and proclamation. Souls are dying that need Jesus.

Jesus is all powerful. John 1:1-4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esus has the power of life. He is the glory of God. In Him is life! Faith unites you to Jesus. Hebrews 4:2 says, "For indeed we have had good news preached to us, just as they also; but the word they heard did not profit them,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in those who heard." Salvation comes by faith in Jesus Christ. Paul proclaimed,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m. 1:16). Jesus asked the scribes,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paralytic, 'I say to you,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go home'" (Mk. 2:9-11). Jesus not only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but to handle everything. Because of four people's faith, a quadriplegic man got up, free from sin. How powerful is that?

My dear friend, like the paralytic man, you too were onc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Eph. 2:1). Before coming to Christ, we all lived without hope until Go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so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surpassing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Eph. 2:6&7). Faith in Jesus Christ not only cleanses our sin, but also allows Him to handle everything. Our part is so easy. Matthew 28:18-20 says,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When Jesus forgives your sins and heals you, making you into a new creature, He uses you as a witness, so that you can befriend other poor souls, like the four men who brought the paralytic man to Jesus. Now, he has the ability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Do you have the ability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What excuses do you give knowing that Jesus handles everything? 🙏

다움 주일 설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3-12)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네 친구들에게 들러온 한 중풍병자, 몇몇 서기관, 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몰려온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근처 다른 촌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오시던 참이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막 2:1).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가버나움은 적지 않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라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노라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막 1:39) 지난 번 마을에 들렀을 때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던”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막 1:34).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실 때, 저변에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와 내렸습니다. 예매 도중에 일어난 이 예외적 일은 예수님의 사신을 끌기 위해 충분했습니다. 침상 위에는 사자를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까. 주위에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 기련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만나는 장애우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 보통 한 사람 정도만 도와주면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송이 완전히 불가능하여 네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옮길 수 있었습니까. 그는 회망이었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까. 그의 육신은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망설임에 있었습니까.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많은 수고를 끼치는 일입니까? 야고보서 5:14-16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의 죄를 정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

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처참한 육신만 보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맨 먼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6절).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든 육신이나 병든 영혼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죄에 둘러싸인 그의 영혼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지 내면적인 문제는 알지 못하지 못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리오”(렘 17:9).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돌볼 때 여러분은 그들의 죄악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서 죄가 내뿜고 있는 치명적인 독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너를 번민하되 너희 죄가 주를 갈을찌라도 내가 같이 회개할 것이요 간음 같이 불을찌라도 알릴 것이요 되리라”(사 1:18).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친구를 고쳐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 친구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심지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명한

신자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까지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기필코 예수님께 데려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지팡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커다란 구멍을 내고 그를 침상에 메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고서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릎을 용서해 달라는 애기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가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진 알고 계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겠다는 친구들의 결심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4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2를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바 말굽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회한하지 아니함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르고자 하되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롬 1:16).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막 2:9-11).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도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엡 2:6-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18-20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가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종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기쁜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까?

장로 칼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11교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장철환 (11교구장)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일에 온전케 되며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11교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에 거주하는 믿음의 식구들로서, 7개 지역과 30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교역자를 비롯한 750명의 식구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마 16:24), 성령 충만하여(엡 4:13)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

성령강림 후 초대교회는 3,000명(행 2:41), 5,000명(행 4:4) 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큰 교회가 되었다. 이들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즉,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교회(행 16:40), 브리스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3,5), 빌레몬 집에서 모인 교회(몬 1:2)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칭송과 호모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갔으며 그 숫자의 증가는 집에서 예배하는 모임에 의해 더 가속화되었던 것이다(행 2:47).

오늘날 교구의 구역모임이 초대교회 당시에 같이 믿는 성도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웃과도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칭

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볼 때에 교구의 지역장, 구역장, 권찰의 역할과 사명은 실로 크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신령이요, 교회의 혈관이요, 교회의 세포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청지기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불타는 사랑감을 가진 지역장, 구역장, 권찰이 있는 교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초대교회의 사도바울(행 20:24)과 에바브로디도(딤후 2:30)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11교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막 16:15)라는 주제로 지역(구역) 중심의 관계전도와 진도회별 중심의 월 1회 교회부흥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단기신교도 이미 3월이 사역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팀도 8월 중에 사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깨달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11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 11교구 청지기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것이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으니”

♥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작년에 돌아가지기 전까지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친정 어머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정말 와 닿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바름을 실감하며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생김에 감사합니다. (최영자)



(새가족 양육부에서 6개월 간의 훈련을 마친 새가족들입니다.)

♥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권유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었음 정도로 처음엔 정말 예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아요. 기도를 할 줄 몰랐지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잘 다닐 것 같았어요. 이제 학습 문답을 받고 보니 ‘어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남편도 주말에 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시나봐요! (선동주·임옥화 부부)

♥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처음이에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제 생활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제 봉사도 하고 싶어요.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생겼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정애)

♥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향순)

♥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정말 모르고 최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출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된 것이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심하게 아픈 중에도 6개월 동안 새가족부를 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나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홍영희)

♥ 모태신앙이었지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동창생의 인도로 출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좋아서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여 내가 그 동안 주님을 배반하며 네 애덕로 살았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나오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할 상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금주)

통역자도, 전도지도 없이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전도지나 워크북을 가져가면 위험하다는 정보가 있었다. 즉 물품이 필만한 것은 가져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통역자도 전도지도 없이 과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기만 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했던 모든 선교의 방법을 내려 놓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땅아로 내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원하셨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현지의 동역자인 운전자를 놓고 기도하였다. 그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사역 둘째 날 우리 앞에 기도 응답으로 다가왔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먼저 소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또 우리의 어눌한 전도 언어를 다시금 그들에게 통역해 주었으며 영접기도할 때는 함께 손을 붙들고 동침했다. 우리가 갔던 지역은 2개의 언어를 함께 나가는 것을 보면 기도가 준비한 만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심을 깨달았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운전자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였다. 온 팀원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과 능히 모든 것으로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온 팀원 하나하나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 기도로 준비한 만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심을 깨달았다.

매번 선교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기대해 본다.

김영은(집사, 4교구)

선교일기

7일 첫날, 인천공항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사역지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지만, 막상 발을 내딛고 보니 내치는 모든 것이 점점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일 차 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퀴를 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던 주변의 젊은 이들은 자신의 옷에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도와 주었고, 다영이 진흙에서 차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우리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엔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까지 아꼈습니다.

10일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틈틈이에서 공안들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 순간 성경에서는 '이에 베드로는 무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려라'(행 12:5)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 탐장과 운전기사까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11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 우리는 해발 3,000m에 위치한 사역지에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안들의 단속을 대비하여 전도지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대로 알기만 전도문장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17~18세 가량의 어린 소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일 오전 주일예배를 드리고 시내 중심가의 공원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일행들도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15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당 종업원 중 서너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 주었는데, 그것을 눈여겨 본 다른 종업원들도 찾아와서는 전도지를 달라고 사갔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밥 먹는 것도 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6일 "너는 마음을 정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인내하라"(딤후 4:2)는 말씀대로 우리는 마치 막 날에도 공방의 식당에서는 종업원에게, 비행 중에는 연하식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 안국 땅이 눈 앞에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눈물 속에서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한 중년의 온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8교구 2지역팀

순 종

사역지에 내려 버스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또 다른 선교지. 이동하는 동안 야자수와 각종 나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절름 다위에 잘 적응해 하시고 복음의 외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축호전도를 하고 함께 영접기도를 하며 어린이들과 친양하고 뒤돌아 설 때마다 감사함으로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았습니다.

눈망울이 초췌해졌던 어린이들이 사는 순박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들어 구원의 기쁨이 생겼음에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짧은 언어와 손짓으로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박충철(인수집사, 3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11일(월)~7월 20일(수)	4교구 3지역	박원철	7월 13일(수)~7월 22일(월)	대학부(30)	한용배
7월 11일(월)~7월 20일(수)	대학부(24)	이근호	7월 13일(수)~7월 22일(월)	대학부(29)	김형곤
7월 12일(월)~7월 21일(목)	2교구 1지역	박성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4일(월)~7월 13일(수)	8교구 4지역	김종홍	7월 8일(월)~7월 16일(목)	9교구 추가	이창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27일(월)~7월 5일(월)	대학부(18)	김나홍	6월 29일(수)~7월 8일(금)	14교구 2지역	강만수
6월 27일(월)~7월 6일(수)	9교구 8지역	홍성식	6월 29일(수)~7월 8일(금)	18교구 1지역	정부조
6월 27일(월)~7월 6일(수)	1교구 1지역	최내진	6월 29일(수)~7월 9일(토)	대학부(19)	이승득
6월 29일(수)~7월 8일(금)	대학부(20)	정성서	6월 30일(목)~7월 8일(금)	17교구 6지역	김연곤

주님의 음성에

월경, 또 보게 되는 시계, 하루의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다. 설레임의 시간은 다가고, 나의 발은 부지런히 연습실로 향했다. 6월 17일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기대하며 연합찬양대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입했다. 악함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에 말씀을 듣는 내내 영화처럼 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랴'고 정죄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한 채 짐작자의 길을 가고자 소망하였다. 좁은 길을 기거이 가겠노라 말하지만 나는 그 문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런 나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보았을 의로 적시었으니 너는 살았노라"고 마른 막대기가 되어 불구덩이에 새로 변할 수밖에는 없는 이 죄인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으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대하게 하셨다. 매일 반복하는 실수와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도구로 쓰셨다고 말씀하신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은 성경 속의 일화가 아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남겨 두셨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며 기도로서 소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살려두셨다. 나의 살아있음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리셨는지 알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다시 부를것과 존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유이경 (청년1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하나예요.

한국을 떠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곳 독일 Freiburg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 2월 1일 독일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밤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고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독일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잘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줘요. 처음 이 교회에 갔을 때는 설교도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에 부탁해서 설교 요약해 매주 토요일마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읽고 가니 훨씬 많이 알아듣고 은혜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곳에 와서 보니 총현교회에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주일날 다섯 번의 예배와 찬양예배, 토요일 대학부 집회, 금요일집회, 수요일예배, 청지기 훈련, 수련회, 수요일 성경공부 등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잔치인지!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일날 딱 한 번밖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국에 가면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쳐도록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있어요. 이곳에선 아무의 지시할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충족이 안 되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되게 되었어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꼭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세요. 거금이 아니면 내가 또 어디서 주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제발요.' 하고 기도하게 되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꼭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나는 성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영원한 죽을 가운데 건져서 살려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병환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매일 귀만 있는데 주님은 그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내게 성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2005년 6월 19일, 독일에서 이하나 올림

(위의 내용은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하나 지매가 위임목사님께 보내 온 편지 중 일부입니다.)

귀한 선물



총현교회에 발을 디딘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첫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점점 저의 신앙은 갈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이신 시이머남께서는 "예수님께 맡기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단다.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주님만 의지하자"며 저를 기도로 붙들어 주셨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 교회를 옮겼을 때는 많이 막막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저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염영만 (권철, 16교구)

3남매를 위한 사랑의 수고



우리 집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지?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지?"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지?" 등의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이 3명이나 됩니다. 아직은 서로 양보도 모르고,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보려는 철부지들이라서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장난감 하나에 도 서로 뺏고, 싸우고, 울고, 밀고, 아주 시끄럽게 하십니다. 둘을 키울 때와는 달리 셋은 좀 버겁기도 합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화도 내 보고 매도 들어 보

지만, 그 때문에 잠시 후엔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짜증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살전 1:3)란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앗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의 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바로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수고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매일 쏘고 닦아도 지쳐버리기만 한 환경으로 짜증나는 일상이 아닌, '사랑의 수고'라는 점과 작고 어린 영혼들을 통해 내일을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콩팥평생. 다다다. 엉엉엉. 엄마!' 오늘도 여전히 우리 젊은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런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으로 인해 작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소망을 생각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황규리(집사, 17교구)

교회 탐방 71 고등부 선교 5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람들의 발흥은 단요하다. 이런 태도는 구성원들에게는 물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어 준다. 고등부 선교 5팀이 그런 사람들이다. 아직 이들은 미성년이다. 그러나 선교에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세운 이유는 명백하다. D국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등부 선교 5팀의 구성은?

팀장을 비롯 세 분의 선생님과 여섯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선교를 다녀올 예정이다. (홍순길 담임, 양수길사, 팀장)

왜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나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선교를 통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진영)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박인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김종호 교사)

학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학생들과 선교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일꾼 양성의 좋은 기회이지요. 학생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홍순길 교사)
이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연차에 가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다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준호 교사)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점은?

공부의 목적이 선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진영)
이전에는 생각 없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자라를 찾으면서 선교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다솔)
초등학교 때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심부름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선교를 제엄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선교에 도움이 되게 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최한림)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외국어를 배우면서 이제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인호)

D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나라 이름만 들어도 귀가 열리는 기분입니다. 온갖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진영)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가겠습니다. 그 나라 사

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을 느껴요겠 충경합니다. (박다솔)

안 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D국이 어쩌다 우상의 나라가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안 마을이라도 주 안으로 돌아오게 복음을 전하겠습니. D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 가슴이 떨립니다. (최한림)

복음이 잘 갈라지고 전하고 싶습니다.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박인호)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어린 친구들이 오이려 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순순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교야 말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민수 교사)

기도후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손준호 교사)

여러분은 진짜 천국일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홍순길 교사)

이들의 기술한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늘 어떤 원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것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다. (전진실)

다움주일 찬송

254장

주은총 입은 종들이

메리 코메디아 비숍 게이트 여사(Mary Comedia Bishop Gates, 1842-1905)의 찬송으로 기독교 협력회 연차회의에서 소개된 것이 찬송을 유명하게 한 시조이다. 이 찬송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찬송이다.

1절은 주의 종들이 이 지구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 하였으니 가야 할 곳은 어디든지 보내달라는 간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 이들에게 있어바니 이스라엘의 일을 구원하려 나가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일꾼이란 믿는가?

2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 때로다(렘50:6)라고 한탄하시며 "그 목자들이 그들의 결집과 함께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이키니며 열 곳 잃었다"라고 하신다. 그 잃은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야 할 것을 전한다.

3절은 주의 사명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한 성령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저 죄들에 빠져 헤매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4절은 주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탄과 싸울 때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복음 전도의 자리로 달려가자.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충성의 모든 성도가 되자.

(전진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반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반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반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반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
1984 최현희	19	중동2부 나사렛19	2010 김지현	19	대학부 이현희19	2006 이윤환	16	장년부 한진희16	2044 김민준	19	대학부 이우희19
1985 최영경	6	청년2부 한영희19	2011 한민희	17	장년3부	2037 손복희	17	장년2부 이영희19	2045 김민준	19	대학부 이우희19
1986 정효진	9	청년2부 김영희19	2012 한영희	19	청년1부 김희희19	2038 이소희	19	대학부 남준희19	2046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87 이우희	9	청년1부 이영희19	2013 김민희	19	청년1부 부영희19	2039 서현희	19	대학부	2047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88 이우희	19	대학부 정영희19	2014 장기희	4	청년1부 김희희19	2040 김민준	19	청년1부 윤성희19	2048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89 이우희	19	중동2부 이현희19	2015 고소진	19	대학부 조영희19	2041 윤복희	19	대학부 윤복희19	2049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0 지현희	19	청년1부 윤복희19	2016 윤복희	3	청년2부	2042 최민준	19	청년1부 박영희19	2050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1 최민준	19	중동2부 양희희19	2017 윤복희	19	대학부 최수희19	2043 이우희	19	청년1부 양희희19	2051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2 김희희	19	청년1부 박영희19	2018 황희희	9	청년3부 박영희19	2044 김민준	19	대학부 이우희19	2052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3 한민희	5	청년1부 이현희19	2019 유복희	14	청년2부 최영희19	2045 김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53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4 이현희	8	청년2부 동영희19	2020 이현희	19	중동2부 최영희19	2046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54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5 장영희	7	청년3부 김영희19	2021 이현희	19	대학부 최영희19	2047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55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6 장영희	19	청년1부 이현희19	2022 주영희	19	대학부 최영희19	2048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56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7 이현희	19	청년1부 최영희19	2023 장영희	3	청년1부 최영희19	2049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57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8 문영희	17	청년2부 김희희19	2024 장영희	7	청년2부 최영희19	2050 최민준	19	청년1부 최희희19	2058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1999 이현희	19	청년1부 최영희19	2025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51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59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0 장영희	19	청년2부 최영희19	2026 장영희	19	청년1부	2052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0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2 조영희	19	청년1부 최영희19	2027 김민준	17	청년1부	2053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1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3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28 최민준	19	대학부 최영희19	2054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2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4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29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55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3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5 장영희	17	청년2부 최영희19	2030 장영희	4	청년1부 최영희19	2056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4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6 이현희	19	청년1부 최영희19	2031 최민준	9	이현희19	2057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5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7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32 최민준	19	청년1부 최영희19	2058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6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8 장영희	11	청년1부 최영희19	2033 장영희	12	청년2부 최영희19	2059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2067 최민준	19	대학부 최희희19
2009 장영희	12	청년2부 최영희19	2034 장영희	19	청년2부 최영희19	2060 최민준	19	청년2부 최희희19			

※ 출생년월일과 가족이 되는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별세

1. 권윤진 성도 (박태선 집사의 모친, 김충식 집사의 장모, 10교구 의정부1구역) / 1일 별세, 4일 장례
2. 정영록 티코권사 (이창호 장로의 모친, 이윤자 권사의 시모, 8교구 금호2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충현기도원 직원 모집

- 1.모임부문 충현기도원 주빙(여)
- 2.자 격 본교회 세례교인
- 3.재능사유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4.서류제출처 사무국 ☎02-552-8200 (#404)

교회직원 모집

- 1.모임부문 경비직 (약간명)
- 2.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 3.재능사유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티코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02-552-8200 (#403)

◆ 전도회 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7월 3일(주일) ~ 7월 31일(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1월 ~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장년1부 수련회

주 제 : 회 개 (요일 19)
일 시 : 16일(토) 14:00~20:30 17일(주일) 12:30~14:00
장 소 : 교육관 507호

2005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

- 1.신청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 2.신청기간 6월 26일(주일) ~ 7월 10일(요일)
- 3.문의및신청장소 교육국 ☎ 02-552-8200 (#472,47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주일)
설교자/기도자	안창덕/이달옥	최성규/홍순길	황진섭/이신동	이정훈/이재호	김성호/장병권	윤수일/이옥주	김영준/김말자

예배담당 안내 (7/13-7/17)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7/13	수요 I	온 세상 위와여(호산나 찬양대)	류병희	김재순	그릴 수 없느니라(롬 6:15) 여극단 목사
7/13	수요 II	예수님 나의 구주(실모안 찬양대)	김훈	사순송	고난 중에 찬양(막 16:16-34) 이정훈 목사
7/15	금요집회	플루트 유영경·바리톤 오성덕 / 테너 김원섭	이성진		김성관 목사
7/17	주일 I	(예배 전 찬양)	김재식	전제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윤수일 목사
7/17	주일 II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요 / 소프라노 주성진(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희서	황의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정진호 목사
7/17	주일 III	이 세상의 친구들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정원민	장철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김성관 목사
7/17	주일 IV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 / 트럼본 박성은(아반트 오케스트라)	김영덕	고재승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나영랑 목사
7/17	주일 V	이 세상의 친구들 외 / 소프라노 김원희(별려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환	주재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이창수 목사
7/17	주일찬양	이벤 남상준창단 / 핸드벨과이어 / 실모안찬양대	양재홍	김현배	믿음으로 붙 수 있는 것(히 11:26-27)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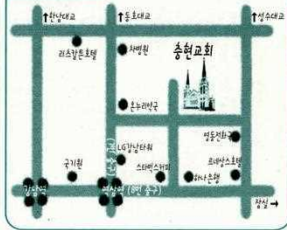
오전 11시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소위(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를 포함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ri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ter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강 렬 리 홀
사 람 부	오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마무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오전 9:00~오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경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1부	오전 11:00	아 벨 홀

7월 충현 기도회 창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강림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매일 둘째 주 주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교회학교에서 진행될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강림 인도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

- 김의철 1교구장, 김은호 2교구장, 노광현 3교구장, 오진국 4교구장, 이병학 5교구장, 정현민 6교구장, 박민기 7교구장, 류병희 8교구장, 김영준 9교구장, 임철성 10교구장, 이 훈 11교구장, 남순우 12교구장, 김용주 13교구장, 유은도 14교구장, 김성관 15교구장, 이종석 16교구장, 이희서 17교구장, 양재홍 18교구장, 이창수 19교구장, 이경준 20교구장, 정진호 21교구장, 김성관 22교구장, 김성관 23교구장, 김성관 24교구장, 김성관 25교구장, 김성관 26교구장, 김성관 27교구장, 김성관 28교구장, 김성관 29교구장, 김성관 30교구장, 김성관 31교구장, 김성관 32교구장, 김성관 33교구장, 김성관 34교구장, 김성관 35교구장, 김성관 36교구장, 김성관 37교구장, 김성관 38교구장, 김성관 39교구장, 김성관 40교구장, 김성관 41교구장, 김성관 42교구장, 김성관 43교구장, 김성관 44교구장, 김성관 45교구장, 김성관 46교구장, 김성관 47교구장, 김성관 48교구장, 김성관 49교구장, 김성관 50교구장, 김성관 51교구장, 김성관 52교구장, 김성관 53교구장, 김성관 54교구장, 김성관 55교구장, 김성관 56교구장, 김성관 57교구장, 김성관 58교구장, 김성관 59교구장, 김성관 60교구장, 김성관 61교구장, 김성관 62교구장, 김성관 63교구장, 김성관 64교구장, 김성관 65교구장, 김성관 66교구장, 김성관 67교구장, 김성관 68교구장, 김성관 69교구장, 김성관 70교구장, 김성관 71교구장, 김성관 72교구장, 김성관 73교구장, 김성관 74교구장, 김성관 75교구장, 김성관 76교구장, 김성관 77교구장, 김성관 78교구장, 김성관 79교구장, 김성관 80교구장, 김성관 81교구장, 김성관 82교구장, 김성관 83교구장, 김성관 84교구장, 김성관 85교구장, 김성관 86교구장, 김성관 87교구장, 김성관 88교구장, 김성관 89교구장, 김성관 90교구장, 김성관 91교구장, 김성관 92교구장, 김성관 93교구장, 김성관 94교구장, 김성관 95교구장, 김성관 96교구장, 김성관 97교구장, 김성관 98교구장, 김성관 99교구장, 김성관 100교구장, 김성관 101교구장, 김성관 102교구장, 김성관 103교구장, 김성관 104교구장, 김성관 105교구장, 김성관 106교구장, 김성관 107교구장, 김성관 108교구장, 김성관 109교구장, 김성관 110교구장, 김성관 111교구장, 김성관 112교구장, 김성관 113교구장, 김성관 114교구장, 김성관 115교구장, 김성관 116교구장, 김성관 117교구장, 김성관 118교구장, 김성관 119교구장, 김성관 120교구장, 김성관 121교구장, 김성관 122교구장, 김성관 123교구장, 김성관 124교구장, 김성관 125교구장, 김성관 126교구장, 김성관 127교구장, 김성관 128교구장, 김성관 129교구장, 김성관 130교구장, 김성관 131교구장, 김성관 132교구장, 김성관 133교구장, 김성관 134교구장, 김성관 135교구장, 김성관 136교구장, 김성관 137교구장, 김성관 138교구장, 김성관 139교구장, 김성관 140교구장, 김성관 141교구장, 김성관 142교구장, 김성관 143교구장, 김성관 144교구장, 김성관 145교구장, 김성관 146교구장, 김성관 147교구장, 김성관 148교구장, 김성관 149교구장, 김성관 150교구장, 김성관 151교구장, 김성관 152교구장, 김성관 153교구장, 김성관 154교구장, 김성관 155교구장, 김성관 156교구장, 김성관 157교구장, 김성관 158교구장, 김성관 159교구장, 김성관 160교구장, 김성관 161교구장, 김성관 162교구장, 김성관 163교구장, 김성관 164교구장, 김성관 165교구장, 김성관 166교구장, 김성관 167교구장, 김성관 168교구장, 김성관 169교구장, 김성관 170교구장, 김성관 171교구장, 김성관 172교구장, 김성관 173교구장, 김성관 174교구장, 김성관 175교구장, 김성관 176교구장, 김성관 177교구장, 김성관 178교구장, 김성관 179교구장, 김성관 180교구장, 김성관 181교구장, 김성관 182교구장, 김성관 183교구장, 김성관 184교구장, 김성관 185교구장, 김성관 186교구장, 김성관 187교구장, 김성관 188교구장, 김성관 189교구장, 김성관 190교구장, 김성관 191교구장, 김성관 192교구장, 김성관 193교구장, 김성관 194교구장, 김성관 195교구장, 김성관 196교구장, 김성관 197교구장, 김성관 198교구장, 김성관 199교구장, 김성관 200교구장, 김성관 201교구장, 김성관 202교구장, 김성관 203교구장, 김성관 204교구장, 김성관 205교구장, 김성관 206교구장, 김성관 207교구장, 김성관 208교구장, 김성관 209교구장, 김성관 210교구장, 김성관 211교구장, 김성관 212교구장, 김성관 213교구장, 김성관 214교구장, 김성관 215교구장, 김성관 216교구장, 김성관 217교구장, 김성관 218교구장, 김성관 219교구장, 김성관 220교구장, 김성관 221교구장, 김성관 222교구장, 김성관 223교구장, 김성관 224교구장, 김성관 225교구장, 김성관 226교구장, 김성관 227교구장, 김성관 228교구장, 김성관 229교구장, 김성관 230교구장, 김성관 231교구장, 김성관 232교구장, 김성관 233교구장, 김성관 234교구장, 김성관 235교구장, 김성관 236교구장, 김성관 237교구장, 김성관 238교구장, 김성관 239교구장, 김성관 240교구장, 김성관 241교구장, 김성관 242교구장, 김성관 243교구장, 김성관 244교구장, 김성관 245교구장, 김성관 246교구장, 김성관 247교구장, 김성관 248교구장, 김성관 249교구장, 김성관 250교구장, 김성관 251교구장, 김성관 252교구장, 김성관 253교구장, 김성관 254교구장, 김성관 255교구장, 김성관 256교구장, 김성관 257교구장, 김성관 258교구장, 김성관 259교구장, 김성관 260교구장, 김성관 261교구장, 김성관 262교구장, 김성관 263교구장, 김성관 264교구장, 김성관 265교구장, 김성관 266교구장, 김성관 267교구장, 김성관 268교구장, 김성관 269교구장, 김성관 270교구장, 김성관 271교구장, 김성관 272교구장, 김성관 273교구장, 김성관 274교구장, 김성관 275교구장, 김성관 276교구장, 김성관 277교구장, 김성관 278교구장, 김성관 279교구장, 김성관 280교구장, 김성관 281교구장, 김성관 282교구장, 김성관 283교구장, 김성관 284교구장, 김성관 285교구장, 김성관 286교구장, 김성관 287교구장, 김성관 288교구장, 김성관 289교구장, 김성관 290교구장, 김성관 291교구장, 김성관 292교구장, 김성관 293교구장, 김성관 294교구장, 김성관 295교구장, 김성관 296교구장, 김성관 297교구장, 김성관 298교구장, 김성관 299교구장, 김성관 300교구장, 김성관 301교구장, 김성관 302교구장, 김성관 303교구장, 김성관 304교구장, 김성관 305교구장, 김성관 306교구장, 김성관 307교구장, 김성관 308교구장, 김성관 309교구장, 김성관 310교구장, 김성관 311교구장, 김성관 312교구장, 김성관 313교구장, 김성관 314교구장, 김성관 315교구장, 김성관 316교구장, 김성관 317교구장, 김성관 318교구장, 김성관 319교구장, 김성관 320교구장, 김성관 321교구장, 김성관 322교구장, 김성관 323교구장, 김성관 324교구장, 김성관 325교구장, 김성관 326교구장, 김성관 327교구장, 김성관 328교구장, 김성관 329교구장, 김성관 330교구장, 김성관 331교구장, 김성관 332교구장, 김성관 333교구장, 김성관 334교구장, 김성관 335교구장, 김성관 336교구장, 김성관 337교구장, 김성관 338교구장, 김성관 339교구장, 김성관 340교구장, 김성관 341교구장, 김성관 342교구장, 김성관 343교구장, 김성관 344교구장, 김성관 345교구장, 김성관 346교구장, 김성관 347교구장, 김성관 348교구장, 김성관 349교구장, 김성관 350교구장, 김성관 351교구장, 김성관 352교구장, 김성관 353교구장, 김성관 354교구장, 김성관 355교구장, 김성관 356교구장, 김성관 357교구장, 김성관 358교구장, 김성관 359교구장, 김성관 360교구장, 김성관 361교구장, 김성관 362교구장, 김성관 363교구장, 김성관 364교구장, 김성관 365교구장, 김성관 366교구장, 김성관 367교구장, 김성관 368교구장, 김성관 369교구장, 김성관 370교구장, 김성관 371교구장, 김성관 372교구장, 김성관 373교구장, 김성관 374교구장, 김성관 375교구장, 김성관 376교구장, 김성관 377교구장, 김성관 378교구장, 김성관 379교구장, 김성관 380교구장, 김성관 381교구장, 김성관 382교구장, 김성관 383교구장, 김성관 384교구장, 김성관 385교구장, 김성관 386교구장, 김성관 387교구장, 김성관 388교구장, 김성관 389교구장, 김성관 390교구장, 김성관 391교구장, 김성관 392교구장, 김성관 393교구장, 김성관 394교구장, 김성관 395교구장, 김성관 396교구장, 김성관 397교구장, 김성관 398교구장, 김성관 399교구장, 김성관 400교구장, 김성관 401교구장, 김성관 402교구장, 김성관 403교구장, 김성관 404교구장, 김성관 405교구장, 김성관 406교구장, 김성관 407교구장, 김성관 408교구장, 김성관 409교구장, 김성관 410교구장, 김성관 411교구장, 김성관 412교구장, 김성관 413교구장, 김성관 414교구장, 김성관 415교구장, 김성관 416교구장, 김성관 417교구장, 김성관 418교구장, 김성관 419교구장, 김성관 420교구장, 김성관 421교구장, 김성관 422교구장, 김성관 423교구장, 김성관 424교구장, 김성관 425교구장, 김성관 426교구장, 김성관 427교구장, 김성관 428교구장, 김성관 429교구장, 김성관 430교구장, 김성관 431교구장, 김성관 432교구장, 김성관 433교구장, 김성관 434교구장, 김성관 435교구장, 김성관 436교구장, 김성관 437교구장, 김성관 438교구장, 김성관 439교구장, 김성관 440교구장, 김성관 441교구장, 김성관 442교구장, 김성관 443교구장, 김성관 444교구장, 김성관 445교구장, 김성관 446교구장, 김성관 447교구장, 김성관 448교구장, 김성관 449교구장, 김성관 450교구장, 김성관 451교구장, 김성관 452교구장, 김성관 453교구장, 김성관 454교구장, 김성관 455교구장, 김성관 456교구장, 김성관 457교구장, 김성관 458교구장, 김성관 459교구장, 김성관 460교구장, 김성관 461교구장, 김성관 462교구장, 김성관 463교구장, 김성관 464교구장, 김성관 465교구장, 김성관 466교구장, 김성관 467교구장, 김성관 468교구장, 김성관 469교구장, 김성관 470교구장, 김성관 471교구장, 김성관 472교구장, 김성관 473교구장, 김성관 474교구장, 김성관 475교구장, 김성관 476교구장, 김성관 477교구장, 김성관 478교구장, 김성관 479교구장, 김성관 480교구장, 김성관 481교구장, 김성관 482교구장, 김성관 483교구장, 김성관 484교구장, 김성관 485교구장, 김성관 486교구장, 김성관 487교구장, 김성관 488교구장, 김성관 489교구장, 김성관 490교구장, 김성관 491교구장, 김성관 492교구장, 김성관 493교구장, 김성관 494교구장, 김성관 495교구장, 김성관 496교구장, 김성관 497교구장, 김성관 498교구장, 김성관 499교구장, 김성관 500교구장, 김성관 501교구장, 김성관 502교구장, 김성관 503교구장, 김성관 504교구장, 김성관 505교구장, 김성관 506교구장, 김성관 507교구장, 김성관 508교구장, 김성관 509교구장, 김성관 510교구장, 김성관 511교구장, 김성관 512교구장, 김성관 513교구장, 김성관 514교구장, 김성관 515교구장, 김성관 516교구장, 김성관 517교구장, 김성관 518교구장, 김성관 519교구장, 김성관 520교구장, 김성관 521교구장, 김성관 522교구장, 김성관 523교구장, 김성관 524교구장, 김성관 525교구장, 김성관 526교구장, 김성관 527교구장, 김성관 528교구장, 김성관 529교구장, 김성관 530교구장, 김성관 531교구장, 김성관 532교구장, 김성관 533교구장, 김성관 534교구장, 김성관 535교구장, 김성관 536교구장, 김성관 537교구장, 김성관 538교구장, 김성관 539교구장, 김성관 540교구장, 김성관 541교구장, 김성관 542교구장, 김성관 543교구장, 김성관 544교구장, 김성관 545교구장, 김성관 546교구장, 김성관 547교구장, 김성관 548교구장, 김성관 549교구장, 김성관 550교구장, 김성관 551교구장, 김성관 552교구장, 김성관 553교구장, 김성관 554교구장, 김성관 555교구장, 김성관 556교구장, 김성관 557교구장, 김성관 558교구장, 김성관 559교구장, 김성관 560교구장, 김성관 561교구장, 김성관 562교구장, 김성관 563교구장, 김성관 564교구장, 김성관 565교구장, 김성관 566교구장, 김성관 567교구장, 김성관 568교구장, 김성관 569교구장, 김성관 570교구장, 김성관 571교구장, 김성관 572교구장, 김성관 573교구장, 김성관 574교구장, 김성관 575교구장, 김성관 576교구장, 김성관 577교구장, 김성관 578교구장, 김성관 579교구장, 김성관 580교구장, 김성관 581교구장, 김성관 582교구장, 김성관 583교구장, 김성관 584교구장, 김성관 585교구장, 김성관 586교구장, 김성관 587교구장, 김성관 588교구장, 김성관 589교구장, 김성관 590교구장, 김성관 591교구장, 김성관 592교구장, 김성관 593교구장, 김성관 594교구장, 김성관 595교구장, 김성관 596교구장, 김성관 597교구장, 김성관 598교구장, 김성관 599교구장, 김성관 600교구장, 김성관 601교구장, 김성관 602교구장, 김성관 603교구장, 김성관 604교구장, 김성관 605교구장, 김성관 606교구장, 김성관 607교구장, 김성관 608교구장, 김성관 609교구장, 김성관 610교구장, 김성관 611교구장, 김성관 612교구장, 김성관 613교구장, 김성관 614교구장, 김성관 615교구장, 김성관 616교구장, 김성관 617교구장, 김성관 618교구장, 김성관 619교구장, 김성관 620교구장, 김성관 621교구장, 김성관 622교구장, 김성관 623교구장, 김성관 624교구장, 김성관 625교구장, 김성관 626교구장, 김성관 627교구장, 김성관 628교구장, 김성관 629교구장, 김성관 630교구장, 김성관 631교구장, 김성관 632교구장, 김성관 633교구장, 김성관 634교구장, 김성관 635교구장, 김성관 636교구장, 김성관 637교구장, 김성관 638교구장, 김성관 639교구장, 김성관 640교구장, 김성관 641교구장, 김성관 642교구장, 김성관 643교구장, 김성관 644교구장, 김성관 645교구장, 김성관 646교구장, 김성관 647교구장, 김성관 648교구장, 김성관 649교구장, 김성관 650교구장, 김성관 651교구장, 김성관 652교구장, 김성관 653교구장, 김성관 654교구장, 김성관 655교구장, 김성관 656교구장, 김성관 657교구장, 김성관 658교구장, 김성관 659교구장, 김성관 660교구장, 김성관 661교구장, 김성관 662교구장, 김성관 663교구장, 김성관 664교구장, 김성관 665교구장, 김성관 666교구장, 김성관 667교구장, 김성관 668교구장, 김성관 669교구장, 김성관 670교구장, 김성관 671